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나섰다

육성위원회 5개년 계획 토론회
육성법·맞춤형 지원 등 전략 논의
완도만의 차별화 정책 수립 집중

완도군이 최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토론회를 열고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전남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식품연구원, 학계 전문가, 기업 대표 등 22명이 참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토론회에서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해조류 완전 이용 기반 시설 확보'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해조류 1차 가공 후 남은 줄기와 잎 등 세컨드 컷이 상당량 발생한다"며 "세컨드 컷을 활용한 산업소재 대량 생산과 자원순환 소재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권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전남도는 해양바이오 창업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양바이오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제품 개발,



완도군은 최근 전남도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토론회를 가졌다. <완도군 제공>

마케팅,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부터 그린바이오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양바이오산업 분야도 관련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 5개년 계

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전국 단위의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기지 구축을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020년 7월 국내 기초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 전통시장 상인이 해남사랑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추석준비 하세요”…해남사랑상품권 15% 할인

1인 70만원까지…역대 최대 할인

해남군이 해남사랑상품권을 1인 70만원까지 15% 할인판매한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류 상품권은 구입시 15%를 할인 판매하고 카드·모바일은 구매할 때 10% 결제 때 5% 금액이 추가 적립된다.

15% 할인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이후 최대 할인 규모로, 추석을 앞두고 소비 촉진 등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실시하게 됐다.

군은 지난 연말연시 침체한 경기 부양을 위해 올

1월부터 3월까지 상품권 10% 집중 할인 판매한 데 이어 7월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을 지속하고 있다. 카드·모바일(QR)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과 모바일(QR) 가맹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추석맞이 15% 할인을 통해 9월 한 달 동안 180억원가량 해남사랑상품권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군은 판매된 상품권이 지역 내 유통돼 지역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조부모 돌봄수당 월 30만원 지급

손자녀 돌봄 수당…10일까지 접수

무안군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까지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다. 선정된 조부모는 본격적인 돌봄활동에 앞서 온라인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돌봄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돌봄활동은 활동일지 작성 및 출·퇴근 기록업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돌보는 손자녀 수와 관계없이 수당은 3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

된다. 다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일 경우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는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10일까지 부모 가정 소재지 읍면사무소(남악·오룡은 신도시지원단)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주민생활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지원이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 세안종합병원-신안군복지재단 업무협약

목포 세안종합병원(내과 진료원장 양종태)과 신안군복지재단(이사장 강정희)은 지난 27일 신안군복지타운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복지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복지재단 운영시설 의료서비스 강화 ▲저소득 환자 지원 ▲도서·낙도 주민 대상 의료봉사 ▲정기 후원 및 자원봉사 ▲공동사업 추진 등 지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안종합병원은 신안군 저소득 주민을 위해 매월 정기후원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다는 방침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 현황이 공유됐다. 2004년 설립돼 2019년부터 신안군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이 시설은 현재 정원 75명 가운데 57명의 어르신이 입소해 있으며,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44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연간 약 22억 8000만원 규모 예산으로 인지기능 강화, 재활훈련, 촉탁의 방문진료, 감염병 예방, 일상생활 지원 등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정희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어르신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세안종합병원과 함께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광군, 하반기 소상공인 맞춤 지원 본격 추진

임대료·카드수수료·시설개선 지원

영광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점포 임대료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9월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점포 임대료 지원은 영광군에 점포를 임차해 6개월 이상 정장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5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업체당 최소 20만원에

서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카드 수수료 지원은 영광군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영광군에 5년 이상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점포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비용의 50%를 보조하며,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건강기능식품 300ml x 3병(900ml)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를 입니다.